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 백신에게 듣는다<마흔한번째>

### 대현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기도와 참선
- 일시 : 불기2550(2006)년 9월 16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 [대현 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1979년 자운스님을 은사로 출가 및 비구계 수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자문위원
- 수원불교연합회 회장
- 수원구치소 종교 교화위원
- 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9월 사찰환경 답사

홍천 수타사, 물걸리사지, 서봉사계곡



- 일 시 : 2006년 9월 17일(일)오전7시30분
- 출발지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9월호

# 佛像의 의미...

조계종 포교사 권중서



**오** 부처님의 출현은 인도사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빛이 되었고 그 가르침은 영원불멸한 진리 그 자체가 되었다.

부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불제자가 앞을 다투어 귀의하였고, 부처님의 입멸 이후에는 탑을 조성하여 예배 공양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敎理的 변천을 거친 대승불교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부처님에 대한 추념과 그를 가까이 모시고 예배 공양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의에 의하여 불교미술은 차츰 그 始原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므로 불교의 사상사적 변천과 그 미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尊像을 조성하여 예배 공양하는 종교의 세계에 있어서의 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출발한 숭고한 인간정신의 결정이며 동시에 끓어오르는 종교 정신의 위대한 표출인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고, 또한 무한한 존경심을 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말 할 것도 없이 그 불상에 내재되어 있는 숭엄한 인간 정신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순수한 부처님에 대한 상상력의 만남일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만남은 불상이란 하나의 조형체를 의지하여 완성되는 것이므로 방편적 교화에 의하여 불상을 통한 人間心性的 淨化와 歸依의 當體로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상은 偶像이 아니라 2600년 전의 부처님이 현재 이 자리에 계심으로 시공을 초월한 禮敬者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주 토함산 석굴암의 부처님이 아무리 조각이 아름답고 뛰어나더라도 그 미적 감각을 위해 신라인들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불상에 내재되어 있는 부처님의 숭고한 사상에 기인하여 崇嚴한 존상에 예경, 찬탄, 공양함으로써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하듯 禮拜像들은 모두 불교교리에 입각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에 나타나는 佛格이 실지로 만든 상에 나타나야 한다.

불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교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예배 대상의 상을 佛像이라 하여 넓은 의미로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諸像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부처님의 상에 국한하여 如來像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불상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佛教尊像이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통상 불상이라 칭하게 되며, 불상이라 하여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상에는 佛(如來), 菩薩, 明王, 天部, 阿羅漢등을 말하고 오늘날 이처럼 수많은 불교존상을 지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교리의 발달에 따르는 대승 보살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처님만 하더라도 교주 석가모니를 위시하여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등 수 많은 부처님이 있고, 보살 역시 문수, 보현, 관음, 세지, 미륵, 지장, 금강장, 제장에 등 8대 보살을 비롯한 한량없는 보살을 말하고 있으며, 명왕에도 不動명왕, 降三世명왕, 軍荼利명왕, 大威德명왕, 金剛夜叉명왕 등 오대명왕과 팔대명왕 등이 있으며, 천부에도 범천,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인왕 등이 있으며, 아라한 또한 16, 500, 1250 아라한, 10대제자 등이 있다.

이러한 불상의 모습 또한 5000년을 내려온 우리민족의 얼굴 즉 우리의 얼굴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서 조성된 부처님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 조상들이 조성한 부처님은 편안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지닌 우리만의 자연스러움이 배어나온다.

사찰을 참배할 때 먼저 부처님을 향한 일념이 생기는 까닭 또한 이곳에 2600년의 모습을 하신 부처님이 지금 내게 현신(現身)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경기 불교

##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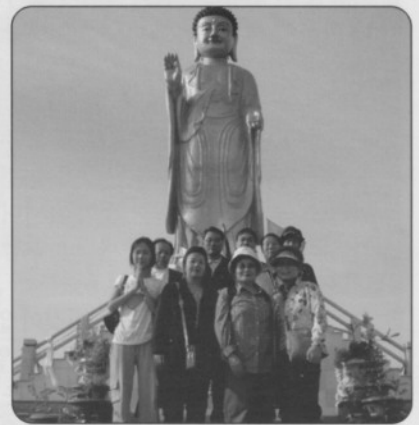
## 몽골 불교 유적지를 찾아서(Ⅱ)



경기불교문화원장/우양금당 - 진철희

**청**주 국제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UB)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4시간정도이다. 실체는 5시간정도인데 4월부터 9월까지의 서머타임이므로 1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시차도 같이 가고 있다. UB로 가는 몽골항공이 청주공항에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여행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출발일 1주일 전이었다. 그전에는 인천공항에서 떠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주 공항은 처음이라 2시간 전에 도착 예정으로 평소보다 이르게 문화원에 모여서 준비된 차량으로 출발하였다. 아직은 휴가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중부고속도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데 막힘이 없었다. 예전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여 내륙에 있는 국제공항을 둘러보았다. 하루 몇편의 비행 중 2~3편이 중국과 몽골이 며 나머지 국내항공편이다. 편의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했으나 서비스는 엉망이다. 오늘 처음 취항하는 UB로 가는 비행기는 예정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안내방송 없이 무조건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항공사 직원들을 보면서 이번 문화답사가 순조롭지만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몽골의 경제사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UB공항에 도착하여 현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와 미팅을 하고 Lion Hotel숙소로 들어오니 11시가 다되어 있었다. 오늘 오후에 관람하기로 한 일정을 전부 내일로 미루고 편하게 잠을 청했다. 몽골(Mongol)은 유라시아 대륙중앙에 위치한 육지속의 고립된 나라이다. 156만km<sup>2</sup>의 면적으로 한반도보다 7배 이상 넓은 국토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270만으로 남한의 15분의 1이다. 해발1500m에 부근에 위치한수도인 울란바토르는 보그드산과 툽강 연안에 동서로 길게 늘어져있으며 반 이상의 주민들이 13세기 생활양식을 고집하며 천막집인 게르(ger)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UB는 몽골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울란바토르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거리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들이 구소련계와 일본 자동차 속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도 한류물결이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불교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은 매우 근래에 들어서이다. 몽골 불교 NGO연합회 대표 구르도바 보취스님이 자이산 중앙 몽골 국립공원에 대불 부처님(사진참조)을 건립하고 난 이후부터 불교가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이산 국립공원에 세워진 대불(높이 123m)은 한국 금강선원의 활안 한정섭 스님(현 고려사 주지)의 협조로 2004년 10월 이루어져 한.몽 간의 불교의 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자이산 국립공원에 있는 전망대는 울란바토르 시내와 주변의 광활한 초원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남산과 같은 곳이며 2차대전 전승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전쟁승리를 기념하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50주년 기념으로 러시아에서 1971년에 세워준 승전탑 아래에 금싸라기땅 8천여평을 한국불교의 상징인 대불을 조성하게 한 것은 몽골인들의 수백 년동안 삶의 기틀이자 의지처가 되어준 불교에 다시 귀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몽골 전역에는 300여개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3000여명의 승려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39년 불교말살정책이 실시된 이후 10년전만 하여도 50여명의 승려와 3개의 사찰이 전부였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기적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기적을 실제 보게된 것은 우리 엘행들이 자이산 대불에서 아침예불 마치고 인근공원으로 가려는데 맑은 하늘에서 영롱한 무지개가 비쳐주고 있었다. 파란하늘에서 비쳐지고 있는 햇무리를 보면서 부처님의 오묘한 진리가 들리는 듯하여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걸음과 호흡을 멈추었다. 경기 불교

### 부처님 말씀(11)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 법구경 65 -

An intelligent man, even though he is associated with a wise man only for a moment, quickly understands the Dhamma, just as the tongue knows the taste of soup.  
- The DhammaPada 65 -

### 현대트랜즈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법문

#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용주사 주지/정호 스님



30년 줄았는데 나보고 내 놓으라고 하니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특히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고 또한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공부가 되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며 평소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공부가 잘되지 않습니다.

간화선(看話禪)이란 글자 그대로 말씀을 보는 선으로 이를 화두선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질 무렵 어둠이 깔릴 때 길을 가다가 뱀을 밟아 깜작 놀란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 그것은 새끼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새끼줄에 속았던 것입니다. 뱀으로 알았을 땐 뱀의 관념이 지배하기 때문에 공포가 일어났으나 새끼줄 인지를 확인 한 때에 공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한다는 착각이 믿음으로 집착되어 이것이 여러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6도 윤회를 거듭하여 고통을 만들어 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공포가 새끼줄의 확인으로 공포가 사라지듯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49년 동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3법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행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은 흐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는 약 60조, 그 수명은 약 45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초 전의 나와 1초 후의 나는 절대 동일인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변하는 주체 쪽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무아입니다. 이것이 제법무아입니다. 변화의 형식이 짜여 있는 것이 연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얽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고요함 이것이 열반적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다는 사실에 투철해지려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유 또한 뇌세포의 작용임으로 그 주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로 인식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고요히 사유하다 보면 뱀이 새끼줄로 인식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무수히 쌓이고 쌓여서 망상이라는 뱀의 모습으로 보여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리의 모습, 우주의 실상이 보여 집니다.

새끼줄을 새끼줄로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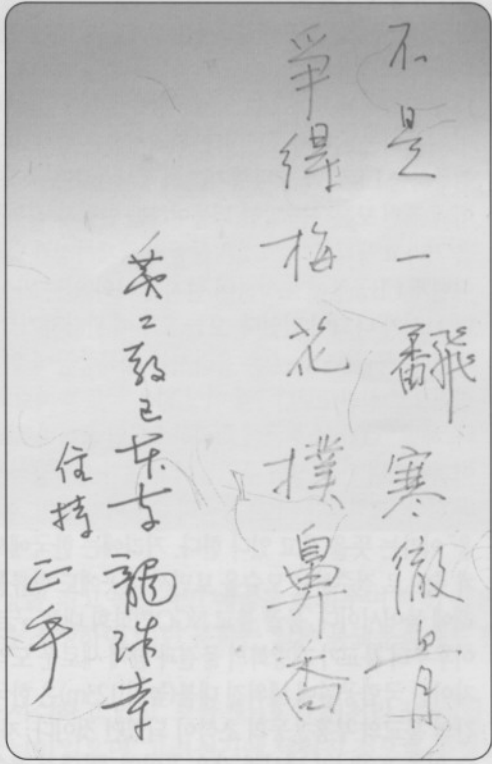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끊임없는 사유 이전을 비취 보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논리적 사유로 결론을 지어 보아도 확신이라는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체이지 객관적인 진리라고는 다릅니다.

사유는 사유일 뿐이지 이 머리를 떠나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의심하면 필연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화선의 지도는 인천 송담스님의 법장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송담스님의 법의 자장 속에서 나 이전의 나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목탁

##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를 마치고

본원 이사/대명 윤영무

하늘은 맑았고 별은 총총하였다.

영축산 기슭 금강계단에서 울려 퍼지는 예불소리는 장엄 그대로였다.

1,700명의 대합창단은 한사람도 뒤는사람없이 일사불란하게 지심귀명례를 이어 나갔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연례행사인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는 유서깊은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전국 1,700여명의 전국 포교사들이 노란사쓰로 물들인 가운데 여법하게 열렸다.

9월에 들어 시원한 초가을의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진행된 대법회는 1년만에 만난 반가운 범우들과의 이야기 꽃으로 묵언하라는 표어가 무색하였다.

포교원장 도영 큰스님과 통도사 총무 스님께서 환영 해주시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1박2일간의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가 시작되었다.

행사의 꽃인 8재계 수계법회는 총무원장이신 지관스님이 전계대회상으로 계를 주셨는데 신성한 의식에 참석 한 것만으로도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슴벅찬 열망으로 다가왔다. 연비의의식에 이어 가산지관 대종사의 다짐으로 재가불자가 지켜야 할 8재계 실천덕목을 읽어갈때에 대중은 힘찬목소리로 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다.

다음은 1시간 반에 걸친 설우스님의 선강의는 해박하고 명쾌한 설법으로 매우 감명깊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부처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선이라는 법문에 다시한번 참회와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본다.

그리고 뒤이어 진행된 촛불행진은 1키로미터나 이어진 2열 행렬로

장관을 이루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듯이 영롱한 별빛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촛불행렬이 경내를 환하게 밝힌 가운데 1시간에 걸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성지 사리탑을 도는 감격스러운 탑돌이로 이어졌다. 시간은 밤 12시가 지났으나 8재계 실천덕목에 따라 오후불식으로 저녁공양을 하지 않았건만 불평한마디 없이 머리는 맑았고 신심은 더해왔다.

자정을 지나자 철야정진에 들어가 천수경, 108참회문, 금강경 독송으로

새벽까지 이어지는 설법전에서의 정진법회는 열기가 더해갔다. 온몸은 땀에 범벅이 되어가고 108참회와 더불어 하는 300배 정진은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자 아침예불로 다시한번 대합창은 영축산으로 울려 퍼졌다. 금년에는 신규포교사 품수식이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와 더불어 개최 되었다. 425명의 신규포교사들이 엄숙한 선서를 하면서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새롭게 전법 포교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수기를 받는 후배 포교사들이 그렇게 믿음직해 보일수가 없었다.

이들간 계속된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는 지계의 서원으로 대승보살의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회향하였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 나는 무절제한 식사를 금하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8재계)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경기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 241-1004 / 원장실 031) 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어 / 학 / 강 / 좌

- 영 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사. 이영준
- 중국어 : 매주 목요일 2시 30분 강사. 안미영
- 수강료 : 3개월 60,000원



# 마라난타에서 영광까지

사찰답사반원/민미양

새벽바람을 헤치며 버스를 타고 30~40분가량 달려간 곳이 팔달문 경기불교문화원 앞이었습니다.

항상 화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여인이라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고추는 빨갭게, 벼들은 열매가 열려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찰답사를 간 곳은 전라남도 영광군 불광면 모악리 모악산에 자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8교구본사 백양사 말사인 불갑사입니다.

백제 불기 928년(서기384) 침류왕 때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인도)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불교문화는 중국 삼조 양대 보교조각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상 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조각수법을 보여주며 백제만의 특징적인 보교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문화의 시초가 바로 불갑사라 합니다.

간다라 지방은 헤레니즘 문화영향을 받은 곳으로 불상제작 역시 신상을 조각하던 그리스 전통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풍의 자연주의, 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당시 불상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며 역동적인 율동감과 양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갑사의 세 분의 부처님이 간다라 지방의 양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파미르공원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대상길인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걸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며 불교는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자신의 사상을 펴고 독창적인 예술을 꽃피우며 특히 작은 나라였던 백제는 중국불교의 특징을 많이 수용 변형하여 불교문화 예술의 흐름을 조성하여 이런 문화는 일본 불교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불갑사에서 많이 자생하는 참식나무, 상사화, 그 밖에 여러종류의 꽃과 나무가 서식하고 있고, 보물 504호인 신천리 3층석탑은 2층의 가단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 꼭대기는 머리장식을 받치던 받침들만 남아있으며, 고려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기단이 새겨진 2개의 가운데 기둥과 위층 1개의 가운데 기둥기단을 보아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광군에서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인 법성포 어귀에다 파키스탄의 라흐라 박물관에서 구입한 간다라 불교미술품을 전시하는 유물관과 부처님 일대기를 조각한 대탑을 세워 그 옛날 백제 불교의 찬란함을 널리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불때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불교문화는 어느 종파의 미술품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재임...

아울러 원불교 성지에 핀 홍련과 백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연화장 세계를 다녀왔던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경기 불교



8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8/1~8/31) 79명 1,639,26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염규용, 윤영무,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정무근
- 이상범, 김기현, 구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 송호윤,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양준영, 송경주, 이학운, 최숙련, 강영식, 김경수, 김정숙, 이병일,
-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조남종, 정현숙, 차용희, 이상님, 정경화, 서의호,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어윤식, 이민수,
- 정재안, 정효진, 신윤식, 박흥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주인수, 윤광숙, 조권형, 이수교, 박종준, 김묘정, 이규중,
- 용희순, 김지은, 김명옥, 김혜자, 이사현, 강기순, 신현자, 장명순, 이경원

##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9월 27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등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50,000원
- 강사 : 포교사및 전문법사

##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 경불원 소식

### ▶ 백인에게 들는다(마흔번째)

불기2550(2006)년 8월 19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주지 정호근스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 8월 사찰순례

(영광 불갑사, 신천리3층석탑, 내산서원, 최초불교도래지)

8월 사찰답사는 영광의 불갑사, 신천리3층석탑, 내산서원, 영산성지 백련방죽, 법성포 최초 불교도래지를 다녀왔습니다.



### ▶ 가을 음악회 개최

본원에서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10월21일) 오후6시부터 가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찬불가, 가곡)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악가 소프라노 김혜은, 찬조, 문명하
- 반주자 이은숙(화계사 합창단)

## 신/행/상/담/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상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전화는 031)251-1083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교상담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 문/화/행/사

### ▶ 월정사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는 오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 '제3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및 헌다례 행사는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월정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기념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민족문화유산을 여법하게 보존하고 보전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이밖에도 디지털 사진 촬영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세계음악대여행, 산사영화제 및 음악회등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 ▶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오는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팔만대장경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목판인쇄문화와 판각인쇄의 성지' 해인사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유명 목판화와 판각 작가들의 전시회를 비롯해 팔만대장경 제작 전 과정을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진다.

또 전국 청소년 판각 공모전과 어린이 판화교실도 진행될 예정이다.

### ▶ 제 7회 동국불교미술인전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재순)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단체전을 연다.

올해로 제 7회를 맞는 동국불교미술인전은 격년제로 실시되며, 불화, 조각, 회화, 공예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 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29일~2007년 2월25일까지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실크로드에서 온 천불도'를 주제로 테마전을 개최한다.

천불도는 불교에서 등장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千佛)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많은 부처님이 여러 행과 열에 걸쳐 반복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이달의 베스트 불서 -

- |               |              |
|---------------|--------------|
| 바다를 삼킨 물방울    | (불지사, 주환법장)  |
| · 시왕경         | (성문, 김두재)    |
| · 산빛 물든 사람들   | (여시아문, 정과스님) |
| ·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 (민족사, 김광식)   |
| · 인연산책        | (미래북, 서문성)   |

# 2006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9월~12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27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목스님	30명	16주 120,000원	심신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23개강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27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9/7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9/7개강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9/7개강
	영어회화	이영준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대현스님	100명	무료	기도와 참선	9월 16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홍천 수타사, 물걸리사지, 서봉사계곡	9월 17일 오전 7시30분 출발	

##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